**주님 공현 대축일(2018년 1월 7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탈무드에서 전해지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날, 랍비가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밤이 지나고 동이 트는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학생이 대답합니다.

“멀리서 강아지와 양을 분간할 수 있으면, 그 때가 동이 트는 시간입니다.”

스승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틀렸어요.”

다른 학생이 대답하기를, “멀리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 나무를 분간 할 수 있으면, 그 때가 동이 튼 것입니다.”

스승의 대답은 또 “아니요” 였습니다.

학생들이 묻습니다. “그럼, 동이 튼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스승이 대답하길, “동이 튼 시간은 멀리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인 것을 분간할 수 있을 때가 바로 동이 튼 시간입니다. 그 때까지는 여전히 밤이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이랍니다.”

짧은 이야기이지만, 아주 의미 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여전히 편견과 이기심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여전히 빛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늘 기다리고, 희망합니다. 인생의 빛과 희망을 늘 기대하고, 늘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게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열심히 갑니다. 열심히 살아가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공현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아주 특별하고 의미있는 축일입니다. ‘공현 축일’이라는 말, 영어로 ‘에피파니’라고 하죠. 이 말은 그리스어에서 온 말인데, ‘나타나다,’ ‘눈에 보여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오늘 비로소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빛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직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있었죠.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몇몇 순박한 목동들에게만 목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로소 동방 박사에 의해서 세상에 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복음은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하늘의 별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 마을까지 다다르게 되었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순간입니다. 동방에서 먼 길을 떠나 세상의 빛을 찾아 온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세상의 빛과 희망과 진리를 찾아 동방에서부터 부지런히 멀고 먼 길을 달려온 이 이방인들에게 드디어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목격됩니다. 이들은 모두 하늘의 별 빛을 쫓아왔죠. 이 커다란 빛은 그들에게 희망과 기쁨과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자신의 먼 여정 길을 마치면서, 행복에 겨워하고, 아주 귀한 선물을 내어 놓습니다.

이 세 사람의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쫓아 그 작은 산골 마을까지 온, 이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진짜로 큰 구원의 빛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은 세상 모든 민족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멀리서 평생을 거쳐 행복의 빛을 찾아온 사람들... 이것이 주님 공현 축일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평화의 빛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진리와 희망과 행복을 찾아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은 바로 그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지요. 결국, 이 동방 박사들이 집과 고향을 떠나 먼 길을 가면서 희망의 빛을 발견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전해져 내려오는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늘 행복을 찾아 먼 인생길을 가고 있는 우리 삶의 여정 이야기가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인 셈이죠.

이제 흥청망청, 즐거웠던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 끝났습니다. 파티도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장식했던 각종 나무들과 불빛들은 이제 박스에 담겨서 창고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모두들 일상의 평범한 시절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기 저기 실내 체육관들은 그동안 성탄, 연말을 보내면서 먹어댄 뱃살을 빼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댈 겁니다. 이 즐거운 시기가 다 끝나고 과연 우리 마음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탄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삶에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즐겁고 행복했던 시즌을 마무리 하면서, 내 가슴에 남아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그리스도가 내 삶에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공현 축일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남는 과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망과 평화의 빛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간직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빛을 어떻게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지 동방 박사 세 사람이 그리스도를 목격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매주 성체 성사를 통해서 내 삶에 들어온 예수님을 만나고,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머나먼 인생의 여정 길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빛을 내 가족과 내 이웃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슬픔과 아픔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생의 어둠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서 우리의 삶을 환하게 밝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빛을 찾아 달려온 동방 박사의 먼 여정길은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구원의 빛을 우리도 바로 지금 여기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통해 인생의 참된 희망과 평화의 빛을 찾은 사람들답게 이제는 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갑시다.